

## ‘문화수도’ 표방 광주시 예술작품 관리는 ‘엉망’

대형 작품 방치 도심 속 흉물로  
상무관 ‘검은비’ 5조각 나눠 보관  
시청 ‘무등산 광섬유’ 조명 고장  
시청사 앞 ‘기원’ 외피 교체 중단  
조형물 조사·관리 시스템 시급

아시아 문화수도를 자칭하는 광주시의 대형 공공미술작품 관리가 엉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도심 곳곳에 설치된 대형 미술작품들이 예산 부족 등으로 방치되면서, 되레 도심 속 흉물로 전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 예술계에선 지금부터라도 대형 공공미술작품에 대한 명확한 관리와 공공조형물 전수조사 등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7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26일 옛 전남도청 상무관에서 수년간 철거 논란이 일었던 ‘검은비’ 작품을 5·18민주화운동기록관으로 기증했다. 가로 8.5m 세로 2.5m의 대형 추상작품으로 쌓여 윗부분을 섞어 쌓의 배열과 색깔을 만들어낸 작품인 검은비는 철거 후 다섯 조각으로 나눠 기록관 내 수장고에 보관된다.

2018년 제33주년 5·18기념행사 상무관 프로젝트 중 하나로 전시한 검은비는 상무관 리모델링을 앞두고, 작가와 일부 시민단체들이 철거를 반대하면서 논란이 일었던 작품이다. 애초 철거를 조건으로 설치된 작품이었지만, 5·18을 주제로 한 상징성과 작가의 기증 의사 등으로 철거에 진통을 겪었다. 작가는 ‘검은비’ 작품이 다시 상무관에 전시되길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대형 추상작품인 탓에 재전시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청사에 설치된 대형 미술작품들도 예산 문제 등으로 제대로 관리 되지 못하면서 ‘흉물’로 전락한 지 오래다.

광주시청사 1층 로비 벽면에 있는 가로 38m·세로 7.4m짜리 작품인 ‘무등산 광섬유’가 대표적이다. 2003년 광주시청사 개청 당시 전국 공모를 통해 2억 5000만원을 주고 구입한 것으로, 광섬유 사이로 빛이 반짝이는 게 특징이다. 하지만 작품 자체가 어둡고, 빛을 내는 조명이 고장으로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시청 로비를 어둡게 하는 주범이 됐다. 광주시는 해당 작품을 다른 장소로 옮기고 미디어 파사드 등을 설치하려 했지만, 워낙 대형작품인 탓에 마땅한 이전 장소를 찾지 못하고 있다. 미술품 심의 부서의 승인 절차 등을 거쳐 작품 폐기도 고려했으나, 반대 여론 등을 염려해 중단했다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광주시청사 앞에 설치된 공공조형물인 ‘기원’도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2005년 제1회 디자인 비엔날레를 기념하기 위해 기업체로부터 8억원을 후원받아 광주시청 앞 광장에 설치한 높이 16m의 초대형 모빌작인 ‘기원’은 이탈리아 출신의 거장 ‘알렉산드로 멘디니’의 작품이다. 빛의 도시 광주를 형상화한 7개의 모빌식 원형 오브제에는 시민 개인의 염원을 담아냈고, 오브제의 겹피는 계절별로 다른 옷을 입게 구성됐다.

2007년까지만 해도 계절별로 4번씩 천을 교체했으나, 2008년부터는 매년 1~2회 정도만 교체하고 있다. 작품의 원형을 유지하기 위해선 해마다 봄·여름·가을·겨울 4차례씩 교체해야 하는데, 1회 교체 비용이 2200만원으로 예산상 부담스러운데다 여름과 겨울 작품은 빨간색 등이 많이 섞여 있어 시청사 분위기와 맞지 않는다는 일부 지적을 반영해 교체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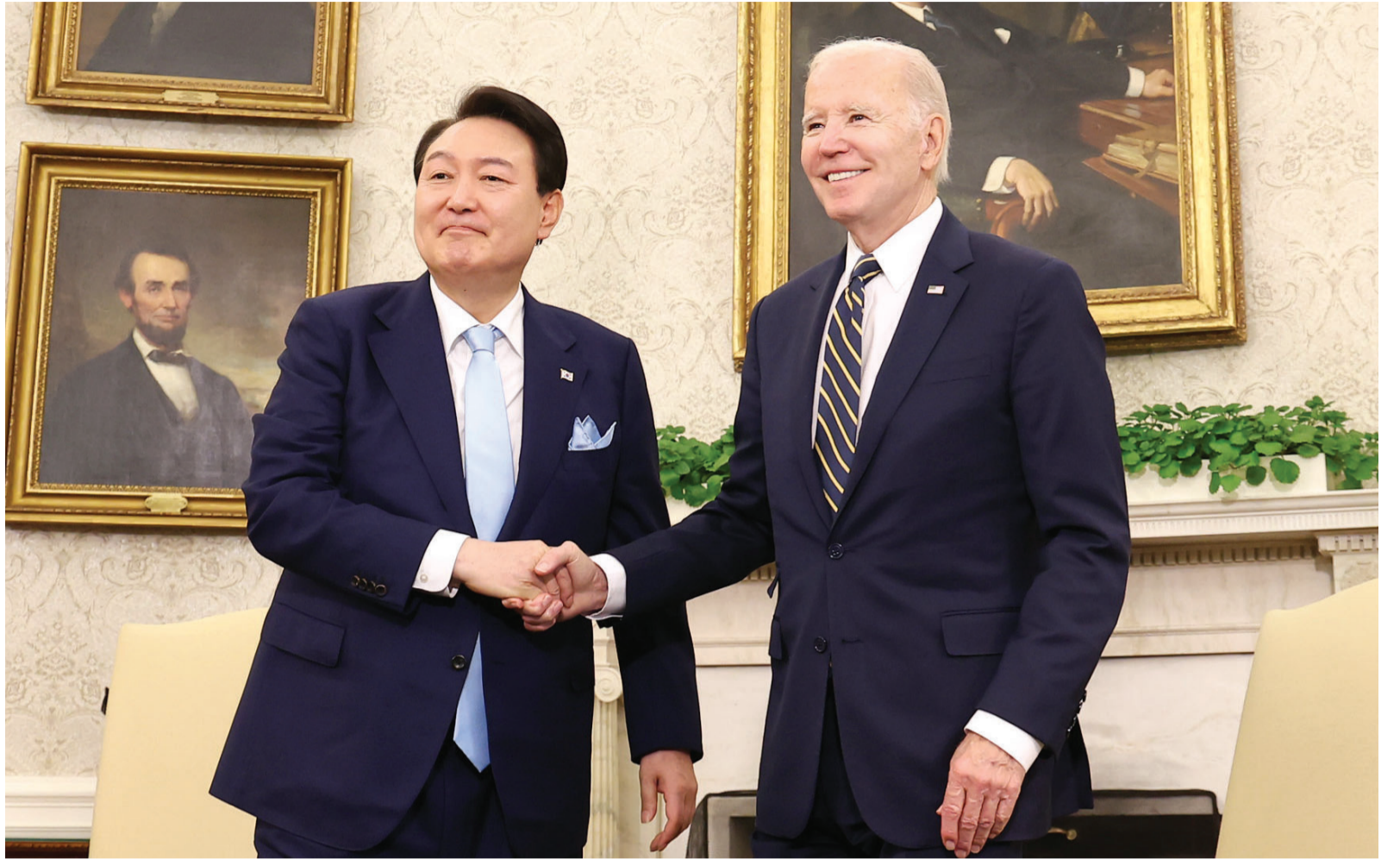
광주 도심 곳곳에 설치된 또 다른 대형 공공미술작품들의 신세도 별반 다르지 않다.

광주 대표 생태공원인 광산구 수완호수공원 내 7m 높이의 6톤짜리 빨간색 우체통은 2009년 1억 원을 들여 설치된 뒤 ‘세계에서 가장 큰 우체통’으로 인증까지 받았지만, 이후 미국 일리노이주에 9.75m 높이 우체통이 들어서면서 ‘세계 최대 우체통’이란 타이틀은 옛말이 됐다. 우체통을 관광 자원화하는 행정정책도 실패하면서, 관광상품은 커녕 주변에 쓰레기만 쌓이는 애물단지가 되고 있다.

광주시가 의욕적으로 추진중인 광주 폴리 작품 중 일부도 시민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2011년 광주디자인비엔날레 특별프로젝트로 탄생한 폴리는 수십억 원을 들여 옛 광주우성터에 10개를 설치한 이후 3차에 걸쳐 현재 30여 개가 광주 전역에 자리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일부 작품은 장소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설치한 탓에 주변 건물이나 시민 동선과 충돌하는 등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다. 광주 중앙초교의 ‘광주사람들’, 금남공원 인근 ‘유동성 조절’, 충장로 파출소 앞 ‘99칸’ 등이 대표적이다.

지역 예술계의 한 인사는 “시청사 앞에 있는 스타 작가의 조형물 하나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서 ‘문화도시’ 등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라며 “폴리 등을 통해 새로운 예술작품을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형작품에 대한 신중한 설치와 설치 이후엔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열린 한미 정상 소인수 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 한·미 정상 “강철동맹” 외치며 3시간 국빈 만찬

워싱턴선언 ‘핵우산’ 실효성 높여  
북한 핵 공격 뎀 즉시 정장간 협의

한국 대통령으로서 12년 만에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을 환영하는 국빈 만찬이 방미 사흘째인 2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렸다.

한미 정상 부부는 3시간 30분간의 만찬에서 200여 명의 참석자들과 함께 한미동맹 70주년을 축하하며 굳건한 우의를 다졌다.

윤 대통령 부부는 이날 저녁 백악관 북현관에서 바이든 대통령 부부와 인사한 다음, 기념 촬영과 짧은 비공개 환담을 마치고 국빈 만찬장인 이스트 룸으로 입장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만찬사에서 “한국인이 용기와 노력을 통해 한국을 세상에 가장 번영하고 존경받는 국가 중 하나로 변화시킨 방식은 우리가 함께 할 때 우리 국민이 이룰 수 있다는 무한한 가능성에 대한 증거”라고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의 이번 방미는 두 나라를 하나로 묶는 모든 것을 재확인하는 데 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건배사로 “우리의 파트너십을 위해, 우리 국민을 위해, 가능성을 위해, 한국과 미국이 함께 만들어갈 미래를 위해”라고 외친 뒤

“우리가 그것을 향후 170년 동안 함께 하길”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진 답사에서 “이 성대한 만찬장에 함께하는 여러분이야말로 역사상 가장 훌륭한 동맹이라 평가받는 한미동맹의 든든한 주주이자 후원자”라고 운을 뗐다.

이어 아일랜드 시인 셰이머스 히니가 번역한 ‘베어울프’의 한 구절인 ‘존경받는 행동이야말로 모든 사람 사이에서 힘을 얻는 길이다’라는 격언을 인용하며 “지난 70년간 한미 동맹을 지탱해온 분들의 존경 받는 희생과 행동이 모여, 우리 동맹은 미래를 향해 함께 행동하는 강력한 동맹이 됐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우리의 강철 같은 동맹을 위하여”라며 건배를 제의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만찬을 마무리하면서 “한

미동맹은 가장 강력한 동맹이며 한국은 가장 능력 있는 동맹국임을 오늘 만찬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이 전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하고, 대북(對北) 확장억제 조치에 합의했다. ‘핵협의그룹(NCG) 창설’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워싱턴 선언’(Washington Declaration)에 구체적인 내용을 담았다. 대북 확장억제를 강화해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한편 한국·미국·일본 정부가 내달 19일부터 21일까지 사흘간 일본 히로시마에서 개최되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의 기간에 정상회담을 여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27일 보도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인턴도 좋아” 절박한 광주·전남 취업생들 ▶6면

복스 - ‘과학 집학사전 통조림’ ▶14·15면

‘출력 = 승리’ KIA, 넘겨야 이긴다 ▶18면

사랑과 감사의 69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3]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전기를 쉬게 하자

봄.  
1kWh  
줄이기  
로부터  
시작

전기 없이도 즐거운 활동이 많아지는 계절입니다.  
TV와 핸드폰 보는 시간을 줄이고 봄을 즐겨보는 것은 어떨까요.  
1kWh의 절약으로 당신의 봄은 더 건강해집니다.

국민의 옆자리에 한국전력